

미주문단 순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캐나다 한인문인협회의 발자취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장 : 원옥재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함은 인류의 오랜 숙원이다. 그 갈증을 채워주는 것이 예술이요, 그 꿈을 구현시켜 주는 것이 문학이다. 이 민생활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워버릴 수 없는 예술에

의 열망과 우리다운 것, 한국 고유의 미(美)에의 부절(不絶)한 의욕이 모여 캐나다한인문인협회를 탄생시켰다.’라는 강령 아래 1977년 1월 15일에 현 문협의 고문이신 이석현 선생님을 중심으로 8명에 의해 캐나다문인협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문학 애호가들의 친목 위주인 미약한 모임으로 출발하였으나 지난 30년간 언어와 문화가 다른 생활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문예활동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왔고 또 수준 높은 창작활동을 통해 동포사회의 교양 및 정서 함양에 이바지한 건실하고 바람직한 모범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우리말과 글의 참된 가치를 찾아내면서 글이 있어 사노라며 글쓰는 일이 존재의 이유가 된 회원들이 캐나다 전 지역에 걸쳐 무려 11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론토를 중심으로 몬트리올, 윈저, 밴쿠버, 알버타, 에드몬톤, 캘거리, 매니토바, 등 캐나다 전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들은 지역동아리 활동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연중행사인 신년회, 출판기념회, 문학제,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한자리에 모임을 갖습니다.

회원들은 이미 한국문단으로 등단한 작가들을 비롯해 해마다 시행하는 캐나다한인문인협회와 토론토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신춘문예> 입상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소설, 수필, 시조, 동시, 동화, 드라마, 평론, 번역, 등 각 장르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작품은 문협의 고정란인 토론토 한국일보의 <문협광장>, 토론토



서울교육대학 졸업. 1973년 캐나다 이민. 캐나다 《한국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입상. 에세이 문학으로 등단. 수필집 『낮선 땅에 꿈을 세우며』.

중앙일보의 <문협에세이>와 <중앙시단>을 통해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본국의 문단과 개인의 작품집 그리고 합작집 등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출간된 회원 작품집은 총 60여 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출간되는 회원 합작인 『캐나다문학』은 1977년에 제1집 『서울』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어 『이민문학』 『이민도시』 『옳겨 심은 나무들』로 이름을 달리하다 1997년 제8집부터는 『캐나다문학』으로 명명하여 제 12집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창립 30주년 특집호인 제13집을 발간하여 처음으로 회원 작품의 영역본도 함께 실었고, 그것은 우리 동포사회가 이민3세에 접어든 시점이기에 문협도 이제는 차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첫 시도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중 언어권의 1.5세와 영어권의 2세들이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계승하며 캐나다의 복합문화 속에 우리의 독특한 이민문학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첫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신춘문예에 번역 장르를 추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회원들의 작품을 캐나다 속의 이방문학과 영어권의 2세들에게 소개하며 교류하기 위해섭니다.

본협회의 활동 영역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동포신문에 회원들의 작품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회원들의 작품집인 『캐나다문학』을 격년제로 출간하고, 회원들의 문학 출판기념회를 주관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동포들과 함께 하는 열린문학제인 호반문학제 및 백일장을 격년제로 열고, 회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겨울문학캠프를 매년 열며, 그외 문학 공개강좌 및 문학의 밤 등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신춘문예를 공모하여 능력 있는 신인 작가들을 찾아내며, 회원들의 문학적 자질 향상을 위해 시분과, 시조분과, 수필분과별 합평회도 매월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창립 이래 문협 성장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회원들의 꾸준한 작품활동이 주춧돌이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봅니다. 문협의 꾸준하고 왕성한 활동은 동포사회에서도 인정받아 지난 1983년도에는 단체 문화상 <캐나다한인상>을 수상했고, 작년까지 아홉 명의 회원이 개인상 문화 부문에서 <캐나다한인상>, <중앙일보한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제 31살의 성년이 된 본협회는 이질적인 문화권에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동포들의 메마른 정서생활에 윤활유와 길잡이가 되어, 잊혀져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이민문학’을 캐나다의 복합문화 속에 탄실하게 뿌리를 내리며, 우리 후손들에게 이민 1세대의 성실하고 정직한 삶과 글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캐나다

신경용

우리 딸 로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국말을 배운다고 1년 동안 서울에 가 있는 적이 있다. 1년 사이에 말이야 그렇게 늘지 못했지만 부모의 나라 한국을 좀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는 되었던 것 같다. 서울을 다녀온 로사가 하루는 “아빠는 왜 캐나다에 왔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이민 온 지 20년이 넘었을 때였다. 내가 무어라고 대답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꽤 당황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때는 나도 왜 이민 왔는지를 잊어버렸던 모양이다.

내가 한국을 떠난 것이 1968년이었으니까 우리나라의 1년 수출 목표가 겨우 1억 5천만 달러, 모두가 참 가난한 시절이었다. 아마 좀



서울공대 건축과 졸업(1962). 요크대학 환경대학원 졸업(1972). 1968년 캐나다 이민. 수상집 『신을 찾아서』(2004). 2000년 은퇴하여 시골에 칩거.

잘 살아보려고 오지 않았나 싶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 남북 전체의 45배가 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땅에 인구는 3500만이 채 안 된다. 그 넓은 땅에 자연 자원도 많아서 세계 10등 안에 드는 자원이 17개가 있다. 그중에 아연과 우라늄은 세계 제 1위이고, 철광석, 텅스텐, 니켈은 3위다. 캐나다가 다이아몬드 생산에서도 세계 6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1년 생산량이 1,120만 캐럿이다. 앨버타 주에 Oil-sand로 묻혀 있는 원유는 그 매장량으로서는 세계 제일이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다.

“캐나다”라는 말은 원주민 중의 하나인 휴런족의 말로, “작은 마을”(Kanata)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또 “온타리오”라는 말은 “반짝이는 물”이라는 뜻이고 “토론토”는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주민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는 것이 신통하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약 200년 전에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원주민을 밀어내고 주인 노릇을 하며 산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원주민 인디언들을 사냥하다시피 마구 죽이면서 빼앗았지만 캐나다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굴지는 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서북쪽에 자리 잡은 광대한 땅(약 200만 평방km)을 누나부트(Nunavut)라는 원주민 자치주로 인정하고 연방정부 의회에 대표를 보낸다.

새로 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도 미국은 “도가니”(Melting Pot)라고 해서 먼저 살던 나라의 말이나 문화에 관계없이 미국의 주류사회에 녹아들 듯이 뒤섞여 본래의 티를 내지 못하게 하지만 캐나다는 “모자이크 사회”라고 해서 각자 자기 본래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면

서 캐나다 사회에 조화롭게 어울려 살기를 바란다.

세계에서 복합문화 창달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이며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뒤에도 원래의 국적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2세대들에게 자기 나라 말을 가르치도록 장려하면서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운영비를 대주기도 한다.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고 순수한 문화단체라면 고전무용이나 판소리를 가르치는 단체도 캐나다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가 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리는 중국말로, 한국 사람들의 가게가 많은 거리는 한글로 도로표지를 해 놓았다. 또 재판소나 다른 관공서에 볼 일이 있을 때 영어를 할 줄 모르면 정부의 비용으로 통역을 해주게 되어 있다. 도서관에 가면 세계 각국의 책들이 나라별로 정리되어 꽂혀 있고 중앙 도서관은 물론, 각 지역 도서관에도 한글로 된 책들이 꽤 많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편지를 써서 껌봉에 한글로 주소를 써도 Korea라는 말만 있으면 아무말 하지 않고 서울까지 보내준다. 외국에 나와 살면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맘껏 달랠 수 있기는 캐나다만한 나라가 아마 없지 않을까 싶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 토론토가 세계 10대 문화도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캐나다에 무슨 세계적 문화도시?” 하며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토론토는 인구 400만(GTA) 정도의 그리 큰 도시는 아니지만 로이 톰슨 홀을 비롯해서 허밍버드, 포드센터 등의 세계수준급 공연장이 여러 개 있고 왕립박물관, 국립미술관은 물론이고 구석구석에 개인 미술관 전시관이 즐비하다.

변두리에 나가 보면 시골에도 자그마한 미술관들이 이곳저곳에 자리 잡고 잘 알려지지 않은 미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새로 발돋움을 하는 초심자들의 발판 노릇을 해준다. 한때 유명했던 “오페라의

유령”(Phantom of The Opera)이라는 뮤지컬이 토론토에서 1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속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토론토의 문화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토는 캐나다 도시이지만 문화적으로는 5대호 근방의 미국 도시들, 디트로이트, 버팔로, 클리블랜드, 시카고 등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서 규모가 큰 문화행사를 어렵지 않게 치를 수가 있다.

온타리오의 또 하나 자랑거리는 하이킹 코스다. 온타리오 하이킹 연합, Hike Ontario에 가입되어 있는 클럽만도 12개가 넘고 시골에 가면 거의 마을마다 제각기 하이킹 트레일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Bruce Trail은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서 Bruce 반도 꼭대기 까지 모두 1,000 km가 넘는 큰 규모다. 여기에는 크고 작은 폭포와 호수들, 하늘 높이 솟은 전나무 숲, 철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자연, 그중에서도 가을이면 보는 사람의 가슴을 저릿저릿하게 하는 불타는 듯한 단풍의 바다를 뺄 수는 없다. Georgian Bay 근처에는 Lake Huron 호숫가 절벽 위를 따라 걷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이킹 코스 20개의 하나로 꼽히는 트레일이 있다.

누가 나한테 캐나다는 어떤 나라냐고 물으면 아마 나는 위와 같은 자연적, 문화적 환경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캐나다에 산 지도 오래되어 이 땅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하다. 요사이에는 어떻게 캐나다에 오게 되었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거나 스스로도 왜 왔을까 하고 자문하는 일도 없지만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캐나다로 온 것을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김형주

올리브-열매

카프리섬 풍경의 원액이 고스란히 저장된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목울대 같은

줄리어스 시저의 올망졸망한 연인들
그녀들의 바람난 젖꼭지만한

저녁노을 향한 수행자의 이마에서
솟은 땀, 그 황금빛 해탈처럼 잘 익은

“살려줘요 뽀빠이” 구조를 요청하는
그녀의 허리처럼 미각을 나긋 조여오는

마티니 칵테일에 시큼새콤 떠다니는
내 젊은 날 알콜농도 만큼 촉촉한

정신없이 삼키다 깨물고만
금단의 씨앗,



1955년생. 서강대 정외과 졸. 캐나다한국일보 편집국장 역임. 1984년 문협 신춘문에 입상. 1998년 해외문학 신인상. <시6토론토> 동인.

나와 아이들이 먹고

앞으로 태어날 세상도 먹을

깨지지 않는 늘푸른 시간 덩어리

노승문

더러운 사십

사십이 간다

배부른 소크라테스를 꿈꾸며
은퇴하는 혁명가를 꿈꾸며

행복한 사십이 간다

경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며
은박지에 싸인 잠언들을 꺼내며*

사랑 때문에 죽을 필요도 없고
진리 때문에 미칠 이유도 없는

마흔이 간다

불혹 대신 물혹 하나,
소중히 키우며



1965년 전북 익산 출생. 고려대 영문학과 졸업. 1998년 토론토 이주.
2004년 캐나다 문협 주최 신춘문예에 시 「강물 연가」로 당선.

더러운 마흔이 간다

* 씨르트리 <구토>

박성민

블루어* 연가(戀歌)

옛날에는 그 곳에 가면
친구나 연인은 아니더라도
막연한 얼굴 만날 것 같았지
한글 간판만 보아도 반가웠어
서울, 고려, 한국, 아리랑……
영어 간판 사이로 얼굴 내미는
수줍은 한글 간판 밑을 걷노라면
김치냄새, 불고기 굽는 냄새
나는 골목길을 걸었다

멈추어서 이름 부르지 못하고
스처가 버린 얼굴들 성공했을까
깨어진 꿈이 땅에 떨어져 굴러
씨앗만 있고 열매 보이지 않는
사랑 한번 못 하고 보낸 거리
늘 바람이 불고 추워도
언제 봄이 오느냐 묻지 않지만



1955년 부산 출생. 1976년 캐나다 이민. 1989년 미주《한국일보》현상 문예 소설 가작. 1999년 해외동포 문학상 시 가작. 2000년 미주《중앙일보》시 가작. 2001년 해외동포 문학상 소설 가작.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슬프다

갈수록 멀어져 보기 힘든 친구들
찾은 자리에 뿌리내려 꽃 피워야 한다
뿔뿔이 흩어져 어둠 속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아직 씨앗이다
겨울바람 돌아가는 등을 밀어
블루어의 밤은 깊어가고
먼 데서 달려온 눈발 휘날리는데
깨어진 꿈보다 부르지 못한 노래있어
나는 걸음이 느리다

* 블루어(Bloor. St) 캐나다 토론토의한인 타운이 있는 거리 이름

변창섭

後記

어릴 때 형제를 갖고 싶었지만
형제 없이 자랐다
촌부의 아들이기 원했지만
소시민의 부모를 두었다
문과대학을 다니고 싶었지만
공과대학을 졸업했다
국군 정훈대를 원했지만
미군 카츄사로 제대를 했다
比丘僧이 되고 싶었지만
결혼하여 아이들을 갖고 있다
바닷가 내 고향에서 살기 원했지만
지금 異國의 별관에 서 있다
소설을 쓰고 싶었지만
지금 詩를 쓰고 있다
다 커서 안 일이지만 나는
형제가 열 둘이나 있었다



인천 직할시 출생. 『現代詩學』으로 등단. 시집 『잔이 잔되게 하라』, 시론집 『현대시 이해』, 토론토 거주, 건축설계사.

유정자

관계

우리의 관계가 구겨지고 터지고 찢어져도
나 그것을 던져버리지 못함은 어쩌다 만난 인연이
소중해서입니다
펴느라 가슴 아프고 껴매고 김느라 힘들지만
봄이 오면 파릇파릇 새 싹을 내밀고 한 여름의
무성한 잎을 피워내는 날들의
열정이 있기에
겨울 내내 빈 가지로 섰어도 나
서럽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으로 인해 마음 아프고 몇 날밤을
잠 못이루며 뒤척여도
내 삶 가운데에 와 준 당신이 고마워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관계를 다듬습니다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세요
돌아선 당신을 찾아가 화해의 손을



성균관대학교 및 동대학원 독어독문학과(석사). 경성고등학교 독어교사. 캐나다 이민(1975). 한국어 교사. 캐나다한국문인협회 회원.

내밀 수 있는 것은 우리들 영혼의
평안이 그림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가 눈부시기 때문입니다.

이금실

도마 위의 바다

억센 손에 잡히어
도마 위에 쓰러지는 바다,
입맛 다시는 큰 고추장 곁에서
한점 한점 포 떠질 때마다
일용할 꿈
펼떡 펼떡 뛰는 눈부심이다.

거역할 수 없는 바람의 손아귀에
도루 찌물에 던져지던가
얼굴 밖으로 튀어 나온 알전등
가시 휘어지는 지느러미
앞만 보며 내 빼던가

어디 썸에서 일까
문득 몸이 없어진 줄 알고
혼절 하던 때가



1949 황해도 개성 출생. 1990 캐나다 한인 문인협회 주최 신춘문에 시부 입상. 1996 한국 통일 진흥 위원회 광복 50주년 기념 현상 공모전. 부총리 최우수상 수상. 2000 외교통상부 장관상 수상. 2000 제2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부문 대상 수상. 현재 캐나다 한인 문인협회 시 분과에서 활동.

깊은 물의 바닥을 치며
솟아 오를 때마다 남겨져
거듭 거듭
도마 위에 쓰러질지라도

산란의 꿈들이 쾌적하게 거니는
등 푸른 바다,
오늘도
가난한 입맞춤 빼어물고
도마 위에서
불을 뿜는 춤을 춘다.

이상묵

숭산(崇山)과 석천(石泉)

숭산은 미디어를
많이 탄 스님

연전 인터넷에
다비식 사진이 떴다
미국에서도 폴란드에서도
클릭 클릭 클릭
마우스들이 부산했을 게다

숭산은 산
가파른 산, 소리를 지르는 산

멋 모르고 오르려 했다가
호통소리에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그가 지어 준 석천 거사
거사는 빼고 석천만 별호로 쓴다



1940년 목포출생. 1969년 캐나다 이민. 1988년 『문학과 비평』에 데뷔. 시집 『링컨 生家에서』(1993년), 『백두산 들쭉발에서』(1996년), 『창작과 비평』 『실천문학』 『작가세계』 『문학사상』 『현대시』 등 작품 게재.

호통소리에 거사는 날아가버렸고

화두에 대해 물어본 게 잘못이었다

어떤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한지 묻는 찰나

논리는 무슨 개똥덩이 논리야

벼락치듯 터져나온 호통소리

언뜻 그의 안색마저 요동쳤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승산의 이 한 마디에

삭발 입문한 미국 청년들도 많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산 속에 있는 물(泉) 물 속에 있는 산(山)

승산(崇山) 속의 석천(石泉) 속의 승산

또 쓸데없이 알음알이 짓노라니

불길 속에 승산은 보이지 않고

무슨 개똥덩이 논리야

불티들이 어둠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이시현

벚꽃 지던 날

구경 한번 안 가도
피어 기다렸지
길 따라 인연 따라
온다는 믿음으로 기다렸지
맘 속으로
얼마나 많은 밤이
짓물려야 울었을까
눈 부어 하얗게 보낸
너 찬연했던 날들
부디 비 오고
내 아플 동안만 돌아와 주기를
바라고 또 바라였으나
이제는 문드러져
채 피우지 못한 몸으로도 저
더는 바라볼 수 없다
더는 아플 수도 없다
화장(火葬)이 끝나고



2002년 캐나다 이주. 1999년 『自由文學』 시부문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캐나다 문협 회원.

강물 같은 땅에 뿌린
흰 빛 육신의 재
펼 펼쳐 내려
더는 묻을 곳 없는데
찾아 든 어느 발걸음.

조정대

소풍길 재미가 어떻습니까

초겨울 빈 산.
양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을씨년스럽게 내려앉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걷다가
막, 산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난데없이 '귀천'의 시인 천상병님이 나타나
"소풍 길 인생, 사는 재미가 어떠냐?"고 묻는다.
털수룩한 수염에
특유의 소박한 미소를 남겨 놓고,
혼연히 사라지는 뒷모습을 쫓다가
스스로 깨닫는다.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소중한 삶, 후회 없도록 살라는
귀한 당부이거나 생각하고
그 말씀, 다시 꺼내어
두 손으로 받쳐들고, 되새김질하면서
산을 내려온다.



경남 창녕 출생. 1964년 동국대학교 국문과 졸업. 1975년 캐나다 이민. 현 캐나다 한국 문인협회 이사장. 시집 『개미 여행』(73), 『겨울 나 이야기라』(93), 『세월의 바닷가에서』(96)가 있고 시가 있는 묵상 『그대 음성 그리워 산길을 걷는다』(07)가 있다.

살아 온
이승에서의 한세상
과연, 나의 소풍길 재미는 어떠했던가.
내게 주어진 배역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면서 살아 왔던가.

바삐 걷던 산길
잠시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른다.
끝이, 저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나의 소풍길.
안으로 타는 목마름을 위하여.

■ 수필

얼음 호텔(Joe Hotel)

손정숙

발렌타인 데이를 며칠 앞 둔 지난 1월말께 얼음 호텔 관광을 했다. 섭씨 영하 23도나 되는 이 추위에 뭘 하러 가느냐며 불평하던 남편도 별 수 없었던지 두툼한 오리 털 점퍼로 단단히 채비를 하고 함께 나섰다.

때맞추어 해맑은 하늘이 온 천지에 찬란한 웃음을 마음껏 내리쬐고 하얀 도화지에 연필로 줄만 친 것 같은 겨울나무 숲 사이로 빨간 벽돌집이 언뜻 내비치는 전원풍경은 날씨와는 아랑곳없이 잔잔한 겨울여행의 즐거움으로 나를 들뜨게 했다.

퀘벡 주 뎃체스네이(Dutchesnay) 산중턱에 자리잡은 '얼음 호텔'



이화여고, 서울 사범대학, 서울 문리대 대학원 졸업. 계간 수필춘추 신인상, 등단. 한국문인협회, 캐나다 문인협회, 한국 국제펜클럽 회원. 전 캐나다 한인학교협의회 회장 역임. 수필집 『그 하늘 그 바람』(공저), 『아니 온 듯 다녀가는 길』 『그림으로 보는 한영사전』 한영 그림이야기 책 5권 외.

은 3천 평방미터의 대지 위에 1만 2천 톤의 눈과 4천 톤의 얼음을 사용하여 32개의 방과 수트(Suit)를 갖춘 연립건물로 지어졌다. 얼음이 녹지 않게 실내온도(-6C)를 유지하기 위해 바람막이만 할 뿐 난방시설이 없는 얼음집은 손발이 시릴 지경이었다.

얼음 액자에 넣은 그림, 에스키모의 생활상을 담은 얼음 조각상을 흥미롭게 둘러본 일행들은 마침내 채플과 스탠드 바, 객실 등이 있는 화려한 얼음 호텔 본관에 들어섰다.

스탠드바에서는 얼음 잔에 ‘보드카’를 따라서 팔고 있었는데 30여 분이나 얼음 속에서 종종 걸음을 치느라 얼굴이 온통 새빨갳게 언 일행들은 사슴털 깔개가 덮인 의자에 흠어져 앉아 한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하루 숙박비 2백 불에 화장실, 목욕실도 없는 냉방의 얼음 침대에서 자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며 다들 떠들어댔다.

나는 하트 형 얼음 램프가 놓인 객실을 둘러다보면서 이미 반세기 도 더 지난 까마득한 옛 추억 속을 더듬고 있었다.

1·4 후퇴 때였다. 아버지와 오빠만 피난시키고 집에서 버티려던 우리 자매들과 어머니는 서울 철수령에 쫓겨 목적지도 없는 피난길에 나서게 되었다. 뽕뽕 얼어붙은 마포강을 걸어서 건넜는데 2살짜리 막내는 어머니가 업고 두 동생은 옷을 입을 수 있는 대로 끼어 입어서 데굴데굴 굴러가는 것이 더 빠를 차림이었다.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해서 피난을 갔었는지 지금도 전혀 모르는 것은 단지 나이가 어렸다거나 한강 너머의 지리를 잘 몰랐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선두도 끝도 없이 길을 꼭 메운 피난민의 행렬에 끼어 앞사람이 가는 대로 물 흐르듯이 밀려갔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차츰 일행에서 뒤쳐지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발병까지 나서 내가 대신 막내를 업고 보니 하루 걸음이 십리를 넘지 못했다.

그날은 유난히 총소리, 대포소리가 잔걸음으로 우리 뒤를 계속 따

라왔다. 어두워지자 조명탄이 사방에서 번쩍이고 비행기까지 썹썹거리면서 우리를 공포감에 휩싸이게 했다.

갑자기 앞쪽에서 팡팡하는 폭격 소리와 함께 불기둥이 솟구치더니 넓은 띠같이 흐르던 피난민 행렬은 요동하는 뱀처럼 아우성치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서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 악을 쓰고 우는 애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온 세상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되었다.

우리가 멈춘 곳은 눈이 무릎까지 잠기는 황량한 논바닥이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우리는 높이 쌓인 짚단을 헐어서 새둥우리 같은 잠자리를 만들었다.

자다가 눈이 떠져서 보니 우두커니 앉아 있는 어머니 주위에 우리 자매들은 병아리 떼같이 엉겨서 자고 있고 얼어붙은 겨울하늘에서는 조명탄과 별빛이 번갈아 가며 머리 위를 밝히고 있었다.

훨씬 훗날, 추운 캐나다에 살며 아이들을 기르느라 힘이 들 때마다 나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짐작되었다. 그 같은 참담함을 이길 때마다 쟁여지던 투지와 자신감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불씨였음도 알게 되었다.

‘아유 추워! 이게 냉동실이지 어디……?’ 모두들 일어서는데 문득 한 생각이 스쳤다.

얼음 호텔에서 맺어진 부부 사랑을 얼음 속에 보관하듯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일생은 어떤 역경이 닥쳐도 틀림없이 행복할 것이다.

‘자고 가자고 그래 볼까?’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머리를 저었다.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신뢰하는 것’이라 다짐하며 미끄러우니 조심하라고 내미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발길을 옮겼다.

■ 수필

정(情)

장정숙

지금 내 집에는 두 번째 무궁화 꽃이 피어나려 하고 있다. 딱 한 송이다. 여름에 그 나무가 피어낸 첫 꽃이 사흘을 살고 진 바로 그 자리에 첫 번째와 똑 같이 폭신하고 둥근 꽃봉오리 쌍둥이가 태어나듯 밀고 나왔다.

2년 전쯤이었을까? 문인협회모임에서 K씨가 자신의 농장에 뿌리를 내린 무궁화 화분을 전 회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떡잎 세 개를 단 새끼손가락만 한 묘목이었다. 그 화분을 받으면서 나는 스스로 약속했다. ‘오냐, 큰 나무로 키울 것이야’ 하고.

자작나무처럼 몸이 희고 가는 줄기는 앞에 수분을 보내기가 힘이



『수필춘추』로 등단. 수필집 『어머니의 딸』 출간. 공저 『아직도 겨울은 길어』 외.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드는지 잎은 까칠하게 말라갔다. 화분을 틀어놓은 물 아래 놓고 돌돌 말린 잎을 앞뒤로 적셔주었다. 살아가는지 죽어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들이 오직 뿌리를 살게 할 조건이기에 비는 마음으로 그 일에 정성을 쏟았다

어느 날 그 떡잎과 줄기 사이로 참새 주둥이만한 푸른 것이 보였다. 그것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면서 떡잎은 슬그머니 떨어져 나갔다. 그로부터도 나무는 하나, 둘, 꾸준히 잎갈이를 하면서 그 사이 줄기도 조금씩 굵어졌다. 50cm쯤 자란 줄기의 가장 실한 가지 끝으로 둥근 것이 맵히고 봉긋한 그 속으로 하얀 살이 보였을 때, 나는 비로소 그것이 꽃나무라는 것을 실감했다.

9월 어느 날 새벽 뒤척이던 잠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버릇처럼 서재로 나가 책상 앞에 앉으면서 불을 키려는데 내 등으로 무언가 ‘툭’ 치는 느낌을 받았다. 영겁결에 뒤를 돌아보았더니 어둠 속으로 봉 떠 있는 희미한 물체가 보였다. 불을 켜자 나는 ‘앗’ 하고 소리를 질렀다. 창 밑 나지막한 꽃장 위로 가늘게 늘어진 무궁화 가지 끝에 보랏빛 꽃 한 송이가 상긋 올라 앉아 있는 것이다.

‘나 피었어요’. 꽃은 자랑스러운듯 웃고 있는 자태다. 춘향이 그네에 올라탄 모습이 그러했을까? 조금은 꺾그러운 꽃잎의 질감이나 부끄러워 안으로 오물아 들듯 피어난 맵시와, 청순한 보랏빛 꽃에 나는 어느덧 살(肉)을 입히면서 인정을 쏟고 있었다.

마치 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모습이다. 그러나 작은 꽃 한 송이 가지 끝에 올려놓은 나뭇가지는지친 듯 처져 있었다.

피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며칠 전 문인협회 모임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내 무궁화 얘기를 했다. 그리고 무궁화를 받아간 사람들 대부분이 나무를 살리지

못한 것을 알았다. 오직 M여사가 받아간 무궁화가 살았다 하는데 그 묘목이 제 키만큼 자라고 꽃도 여러 송이 피었노라고 M여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한 송이도 아니고 여러 송이…… 그리고 제 키만큼이나? 나 같으면 등실 등실 춤이라도 출 일을 저리도 조용하게 얘기하는 그녀가 무정해 보였다.

내 집에는 활엽수 과에 속하는 세 개의 화초가 있다. 이민살이 첫 해부터 같이 있었던 화초들이다. 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노경에 들어 생활반경도 축소되어 비둘기장 같은 공간에 살면서 어느 날, 불현듯 그 화초들이 내 곁에 줄곧 같이 살아주었다는 사실에 눈이 떴다. 이전 관상의 대상이 아닌, 서른 네 해, 나의 봄여름 가을 겨울을 담은 늙은 생명체로 내 곁에 남아 있었다.

같이 살아온 연조를 따진다면 무궁화를 활엽수와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 피었어요’ 하고 내 등으로 투사해 온 무궁화의 신호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보잘것없는 떡잎으로부터 꽃 한 송이 피워내기까지의 나무와 나 사이의 ‘살고자’는 의지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차원에서 그렇게 작용한 것이라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심정이다.

9월에 첫 꽃을 피우고 두 번째를 잉태한 나무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오늘도 굳게 다문 꽃봉오리를 열려고 하지 않는다. 피지도 여위지도 앓으면서 속이 짝 찬 봉오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혹은 나의 기다리는 마음에 불순한 것이 끼어 있기라도 한 것인지. 그것이 묘목으로 있었던 어린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벽찬 마음으로 떡잎을 적셔주던 시절로 마음을 되돌리려고도 하지만 꽃을 한번 본 마음은 옛 자리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기다리는 마음이 나와 무궁화 사이에 버티고 있다.

깊은 밤, 화초를 찾을 때가 있다. 그것들은 내가 다가가면 살랑 입

을 흔드는 것 같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의 과장이라고 일러주었다.
내 몸이 발산하는 강한 에너지가 상대의 것과 합류해서 일어나는 교감의 현상이란다.

내가 저희들에게 쏟은 정을 그것들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 콩트

어떤 관계

장명길

미스 송을 다시 만난 것은 십이 년 만이었다. 유난히 “어머!”라는 감탄사를 즐겨 쓰던 그녀는 분명 송미숙이었다. 나는 한순간 엉켜버린 세월의 실타래 앞에 장승처럼 굳어버린 채, 결코 예사롭지 못한 상황에 점점 아득해지는 느낌을 어찌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나 온 십여 년 세월 동안 가슴 저 밑바닥에 침잠한 채, 이따금씩 동틀 무렵 피어오르는 물안개처럼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책갈피에 고이 접어 말려 둔 검붉은 장미꽃잎이 스스로 부서지는 아픔으로 아릿하게 저며오기도 했다.

남자는 첫사랑을 가슴에 묻는다 했다. 이렇듯 그녀라는 존재가 그



1992년 캐나다 이민. 1998년 『한국소설』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 2004년 창작소설집 『풀의 기원』 발간. 2005년 한국비평문학회로부터 단편 「도망」이 『2004년을 대표하는 문체소설』로 선정. 한국소설가협회,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토록 애틋하게 가슴에 앙금처럼 남게 된 까닭은, 석연치 않은 이별 때문이기도 했다.

“누구신데요?”

이제껏 뒤쪽에 우두커니 서서 황당한 사건현장을 철저히 살피던 아내가, 이쯤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듯 참견하며 들어왔다. 비록 말투는 나긋나긋 깔아 누이고 입 꼬리마저 올렸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배어져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어머, 죄송해요. 인사가 늦었군요. 강 선생님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알던 분이세요. 그런데 부인께서 어쩔 그렇게 고우세요.”

역시 그녀다웠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어느 한적한 서울 변두리 교회였다. 군복무 시절 같은 내무반에 동기와 함께 외출을 나왔다가 그가 다니던 교회에 동행했던 터였고, 그곳 성가대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다. 한눈에 홀딱 반해버린 나는 사람 좋은 그를 졸라 그녀를 알게 된 후, 제대 후에도 교제를 계속해 오는 처지에 이르렀다.

급기야 난생처음 그녀를 인생의 반려자로 생각했고, 고작해야 손이나 잡는 선에서 스스로 만족해 하며 제 물건 아끼는 즐거움을 누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들어 온 외화 한편을 볼 작정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그녀는 마침 외출 중이었다. 빗나가 버린 예정시간. 딱히 그런 처지가 되고 보니 혼자서라도 영화 관람을 하기로 했다. 얼마 후 종영을 알리는 벨이 울리고 관객들이 꾸꾸꾸역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때였다.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뒷모습이 앞서가고 있지 않은가. 나는 설마 하는 기분이 되어 그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 뒷모습은 흰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건장한 사내의 팔짱을 낀 채, 사뭇 매달려 가듯 하고 있었다. 다정한 연인임을 한눈에 알 수 있듯이…….

그랬는데, 한쪽 계단을 다 내려간 그들이 다음 계단으로 접어들기 위해 돌아서는 순간, 난 하마터면 계단에서 발을 헛디딜 뻔했다. 무엇이 그리 좋은지 팔짱을 꼭 낀 채 아양 떨듯하던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미스 송이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 계단을 내려왔으며, 집에까지 도착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 다만 그날 정신없이 퍼마신 술 때문에 다음 날 정오까지 거의 혼수상태였다는 기억밖엔.

그후 그녀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부재중이라는 핑계로 일절 받지 않았다. 끓어오르는 증오심으로 쉽게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가증스러운 그녀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었던 것이다. 그러기를 수차례…….

옆친 데 뉘친다고 했던가. 가전제품 도매업을 하며 제법 잘 돌아가던 친구가 딱 삼일만 돌려쓰면 된다면, 그 즈음 상당한 회사공금을 빌려간 후 부도를 내고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다. 급기야 도망자를 쫓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그 해 한해를 나는 반미치광이가 되어 지방에 내려가 숨어 지내야 했다.

그 이듬해 여름이 되어서야 주위사람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회사 측과 일단 합의를 보는 선에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덕에 나는 다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그제야 설마 하던 그때의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그토록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 있었을까? 기막힐 정도의 그 완벽함에 질려버리다가도, 끝내 자신이 매달리고 있는 쪽은 역시 설마였다. 그만큼 세월이 흘러서일까. 자꾸 생

각할수록 그녀가 그림고 보고 싶어졌다. 더구나 그 해 여름은 그냥 숨어 살 때와 달리 현실적으로 가혹하리 만치 잔인했다. 돌아온 자에게 남겨진 것은 구제금융으로 떠안은 부채뿐이었다. 그만큼 나는 지쳐있었고, 마침내 그녀를 찾아 나서기에 이른 것이다. 직접 만나서 확인한다는 그럴듯한 명제를 앞세우고.

하지만 내게 돌아 온 것은 그녀가 갑작스레 미국으로 가족이민을 떠나버렸다는 우울한 소식이 전부였다. 그동안 여러 번 나를 찾아 왔었다는 사연과 함께…….

“어디 이 근처에 사시나 봐요?”

그녀가 짐짓 아내를 향해 묻는 듯했다.

“아니에요. 저흰 캐나다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이이가 자꾸 여행을 가자고 해서……. 여기 뉴욕은 처음이죠. 지나는 길에 마침 한 인상점 같아 몇 가지 살까 하고 들렸는데, 이런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군요. 그냥 지나쳤더라면 꽤나 섭섭할 뻔했어요. 안 그래요, 여보?”

아내는 말꼬리 끝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나의 반응을 보려는 듯 시선을 매달아 두고 있었다. 나는 내심 아내의 한계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다.

“저 애가 댁의 아드님인가 봐요? 아주 잘 생겼네. 그래, 몇 살이지?”

“다섯 살이에요, 해야지.”

그때 마침 가게 안쪽에서 사무실인 듯한 문이 열리며, 키가 작달막한 사내가 누런 서류봉투를 들고는 이쪽을 향해 바쁜 걸음으로 다가왔다.

“여보, 인사하세요. 한국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시던 분이세요.”

사내는 무심히 지나치려다 붙잡힌 걸음이 되어 멈칫했다.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떡하죠. 급한 불일이 있어봐서…… 이거, 초면에 실례부터 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신경 쓰이지 말고 어서 일 보세요. 바쁘신가 본데…….”

아내가 얼른 나서서 손사레를 치며 답례를 했다.

“예, 그럼.”

사내가 가볍게 목례를 한 후, 이내 바깥으로 사라졌다. 나는 아내가 방금 빠져나간 출입문 쪽을 뚫어 나간 사람 모양 바라보고 있었다.

“뭐해요? 어서 물건 고르지 않고.”

아내가 기어이 못마땅한 표정이 되어 바라보았다.

“너 이거 좋아하겠구나. 이걸 아줌마가 널 만난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야.”

그녀가 가게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몽키인형을 집어 아이를 향해 흔들자, 빠른 템포의 신나는 음악소리가 났다. 이윽고 아이가 잔뜩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자,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그녀가 웃으며 아이를 향해 카운터에서 내려왔다.

그때 나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가 심하게 다리를 절고 있는 게 아닌가. 아내도 뜻밖이었다는 듯, 아이에게 인형을 건네주는 그녀의 다리께만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그녀가 카운터로 돌아가고 난 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제서야 아내가 아이에게 건성으로, 고맙습니다 해야지 한 마디 해주고는, 그대로 아이의 손목을 이끌어 진열대에서 주섬주섬 물건을 고르기 시작했다.

아내와 저만큼 거리를 두고 나서야 나는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뜻밖이었다. 모든 것이. 그렇다고 그 지경이 된 그녀의 불행에 관해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지 않은가. 나는 한번 더 마른침을 삼킨 후, 더듬거리듯 물었다.

“아니, ……어쩌다가?”

그녀는 씩씩하게 웃을 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다시 야릇한 어색함이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나는 그 침묵을 깨듯 무심코 한 마디 툭 던졌다. 아니, 그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 안에 잠재되어 온 물음이었을 것이다.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그녀는 해사하게 웃어주었다.

“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보셨죠? 종로 피카디리 극장에서…… 웬 키 크고 몸집 좋은 남자하고……?”

갑자기 십여 년 전으로 곤두박질치는 세월과 토막쳐 쏘아 내놓는 낱말의 홍수 속에, 그녀는 잠시 혼란스런 표정을 지었다.

“지금 바깥양반이 그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언제인가 느꼈던 설마 하던 기분을 이번엔 기필코 확인하고 말리라는 충동으로 이미 자제력을 잃고 있었다.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던 그녀가 혼잣말처럼 뇌까렸다.

“그랬었군요.”

“기억나십니까?”

나는 다시 한번 마른침을 삼켰다.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로 몇 번을 찾아가 묻기도 했고요. 그날도 그 때문에 버스에서 내려 찾길을 건너는데…… 노란

색 개인 택시였어요.”

“아니, 그 그게…… 무…… 무슨……?”

그녀의 입 꼬리에 설핏 씩쓸함이 번지는 듯하더니, 다시 나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은…… 사촌오빠였어요.”

이윽고 그녀는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